사회자본과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영향에 관한 고찰*

A Study on Social Capital and the Social Impact of Public Libraries

박 성 우(Seong-Woo Park)**
장 우 권(Woo-Kwon Chang)***

목 차

1. 서 론
2. 사회자본의 이해
 2.1 사회자본의 개념
 2.2 사회자본의 구성요소와 특성
 2.3 사회자본의 형태와 범위
3.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영향과 사회자본 창출
 3.1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영향
 3.2 공공도서관의 사회자본의 형태와 범위
 3.3 공공도서관의 사회자본 창출
4. 결 론

초 록

이 연구는 사회자본의 이해를 통해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영향과 사회자본과의 관련성을 이론적으로 검토하여 공공도서관의 사회자본 형태와 범위를 유추하였다. 도서관의 사회적 영향은 개인 및 공동체의 상호작용을 통해 얻어지는 성과물로써 사회의 생산성을 담보하는 사회자본의 효과와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공공도서관이 사회자본을 창출하는 메커니즘을 도식화 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사회자본의 관점으로 공공도서관을 평가하여 향후 공공도서관 정책에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ABSTRACT

This research attempted to examine the influence of the public library on our society and its relationship with social capital. For this research, a theoretical approach to the relationship was required. This approach enabled the research to analyze the type and range of the social capital being studied. In addition, this research emphasized that the social influence of public libraries was equivalent to the influence of social capital, based on the interaction between individual and community. The research outlined the mechanism by which public libraries create social capital. Finally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were expected to help to develop an effective policy for public libraries.

키워드: 공공도서관, 사회자본, 사회자본 형태, 사회자본 범위, 사회적 영향
Public Library, Social Capital, Social Capital Type, Social Capital Category, Social Impact

---

* 이 글은 2009년도 한국문헌정보학회 춘계학술발표회 글을 수정하여 보완한 것임.
**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culturepark@gmail.com)
***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Corresponding Author : wk1961@hanmail.net)
논문접수일자: 2009년 5월 19일 최초심사일자: 2009년 5월 21일 게재확정일자: 2009년 6월 3일

1. 서 론

세계은행에 따르면 한 국가의 자원은 자연자본(Natural Capital), 생산자본(Produced Capital) 그리고 무형자본(Intangible Capital)으로 구분하고 이들을 국부의 3요소라 진단한다. 이에 세계은행은 2006년 '국부는 어디에서 오는가(Where is the Wealth of the Nations?)'라는 보고서에서 한 나라의 국부는 무형자본인 '사회 자본(Social Capital)'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결과를 내놓았다(World Bank 2006). 사회자본은 세계적으로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연구되고 있으며 최신 유행하는 용어중 하나이다(Farr 2004, 61). 1980년대 후반부터 연구가 시작된 사회자본은 경제자본, 인적자본과 다르게 실제로 보이지는 않지만,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자본의 한 형태로 사회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모든 형태의 자본은 다양한 가치와 혜택을 산출하는 자산(assets)이다. 공공도서관은 사회적 자산인 공공재로써 개인 및 지역공동체에 사회적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교육, 문화, 정보제공 및 정보리터러시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게이트웨이로써 그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영향은 지역사회에 속한 개인 및 공동체들의 사회적 혜택과 가치를 나타내며, 혜택과 가치는 도서관을 이용함으로써 얻는 경험 및 차이의 긍정적인 효과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다(Devono 2002, 80).

모든 조직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노력 그리고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반응해야 한다. 이러한 자산, 노력 그리고 자원은 조직의 산출물(output)과 성과물(outcome)을 통해 평가된다(White 2007, 77). 그러나 산출물에 대한 정량적 평가는 쉽게 이루어질 수 있으나 성과물에 대한 정성적 평가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 도서관의 평가는 이러한 혜택과 가치에 따른 성과물(outcome)을 통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도서관과 사회자본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Vårheim 2007, 417). 공공도서관은 사회자본을 창출하는 많은 기관들 중에서 역사적으로 혹은 현재의 사회에서 고려되지 않았다(Kranich 2001, 40-41).

따라서 본 연구자는 공공도서관의 관점에서 사회자본과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자본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통해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영향과의 사회자본과의 관련성을 이론적으로 검토하여 공공도서관의 사회자본 형태와 범위를 유추하고자 한다.

둘째, 도서관의 사회적 영향은 개인 및 공동체의 상호작용을 통해 얻어지는 성과물(outcome)로써 사회의 생산성을 담보하는 사회자본의 효과와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셋째, 공공도서관을 사회자본 창출자로서 역할을 도식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과정을 통해 본 연구에서 얻고자 하는 점은 사회자본의 도입을 통한 공공도서관 평가는 공공도서관의 이해 관계자들에 대한 인식의 전환점을 갖는 초석이 될 것이며, 공공도서관의 밝은 미래를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써 작용할 것이다.

2. 사회자본의 이해

2.1 사회자본의 개념

자본이란 개념은 여러 의미로 사용되며 입장이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달라지나,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 널리 사용된다. 자본 개념이 경제사상의 중요한 범주가 된 것은 고전학파의 등장으로부터 시작된다. 경제학에서 자본의 의미는 물품을 생산할 수 있는 물화자본 혹은 상적 물화자본인 화폐이다. 1960년대 경제학자 Shultz와 Becker는 인적자본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는데, 이들은 정통적인 요인들이 얼마나 생산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가는 한 사회가 제공하는 잘 교육되고 훈련된 건강한 노동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Woolcook 1998, 154). 그러나 물적자본과 인적자본을 포함한 경제자본 개념만으로는 개인과 집단의 경제행위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으며, 사회자본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제기되었다(공유식 외 1994).

사회자본의 논의 가운데, 사회자본의 개념정의와 관련하여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속성을 정리한 학자로는 Bourdieu, Coleman, 그리고 Putnam을 들 수 있다. 사회자본의 최초의 체계적인 분석은 Bourdieu에 의해 이루어졌다(Portes 1998, 3). 사회자본은 지속적인 네트워크 혹은 상호 면식이나 인정이 제도화된 관계 즉, 특정한 집단의 구성원이 됨으로서 획득하는 실제적인 혹은 잠재적인 자원의 총합이다(Bourdieu 1986, 248). 다시 말해 구성원에게 집합적으로 소유된 자본이라는 후원을 제공해 주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 구성원이 신뢰할 만하다고 증명해 주는 특정한 집단의 구성원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Bourdieu는 특정한 행위자가 누릴 수 있는 사회자본의 양은 자신이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연결망의 규모와 또한 그 연결망에 포함된 여러 개인이 소유한 자본의 크기에 달렸다고 설명한다. 여기에서 Bourdieu가 강조한 제도화된 관계망은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으로 사회관계를 수립하거나 재생산하려는 개인이나 집단의 투자전략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사회자본은 사회적 연결망을 통해 획득될 수 있다는 것이다.

Colemann(1988, s98)은 사회자본을 사회구조적인 맥락에서 기능적으로 정의한다. 사회자본은 특정한 하나의 실체가 아니라 다양한 모습을 가질 수 있지만 최소한 두 가지 특징을 공유해야 한다. 즉 사회자본은 첫째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구성되며, 둘째 주어진 구조에 속하는 개인이나 집단이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고 촉진해야 한다. 사회자본은 다른 형태의 자본과 마찬가지로 생산적이며, 그것 없이는 가능하지 않는 특정한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해준다. 즉, 다른 형태의 자본과 달리 사회자본은 둘 혹은 다수의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의 구조 안에 내재하고 있다(Bourdieu 1986).

Putnam(1995, 67)는 사회관계 속에 내재된 자원의 총집합으로써 사람들 간에 형성된 관계망에 기초하여 신뢰와 상호 호혜성과 같은 문화적 요소를 결합하고 활용하여 생성된 자본의 형태로 정의한다. 또한 사회자본은 때로는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존재하는 연대의식과 같은 사회성이나 결사체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의식(civic engagement)과 같은 정치

문화를 일컫기도 한다(Putnam 1993).

Coleman, Bourdieu, Putnam의 사회자본의 개념은 사람들 간에 발생하는 사회적 관계에 기초하며, 주어진 사회공동체에서 구성원 사이의 협조와 협동을 가능케 해주는 호혜성, 신뢰, 그리고 연결망을 말한다(Segageldin & Goortaert 2000).

2.2 사회자본의 구성요소와 특성

사회자본에 대한 개념 규정과 구성요소가 학자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실제적인 적용의 대상 자체가 워낙 다양하고, 다양한 대상에 대한 맥락적 이해가 아울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배영 2007, 60). 이에 배영은 다양한 학자들의 사회자본 개념의 구성요소를 다음 〈표 1〉과 같이 정리하였다.

그러나 사회자본이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있지만 일반적인 구성요소는 호혜성, 신뢰, 연결망을 포함하고 있다. 즉 사회자본이 개인이나 집단이 특정한 개인들 또는 특정집단들과 연결되어 있고, 그들을 신뢰하며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호혜적 교환이 이루어질 때 유·무형의 이득이 생긴다는 것이다(정병은, 배영 2006, 12).

사회자본은 학문적 토대에 따라 정의하는 방식이나 논의의 초점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사회자본 연구들은 형성원, 연결망 그리고 효과의 세 요소로 〈그림 1〉과 같이 재구성 할 수 있다(이준웅 외 2006, 140-1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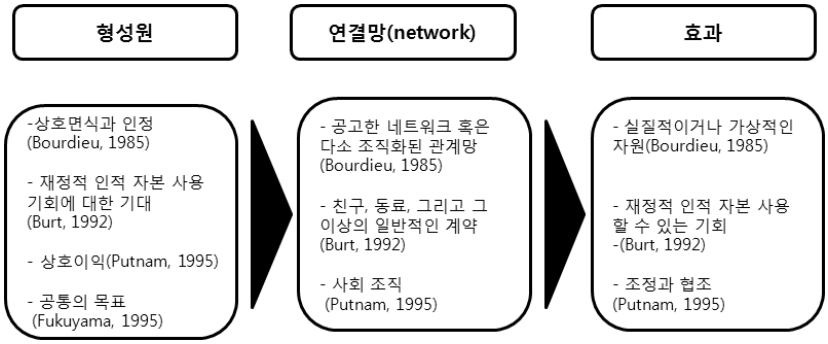
첫째, 사회자본 형성의 이유, 목적, 기대 기능 등을 포함하는 형성원이다. Bourdieu가 제시한 상호면식과 인정, Burt의 재정적 인적 자본 사용기대에 대한 기대, Putnam이 제시한 상호이익, Fukuyama가 언급한 공통목표의 달성 등은 개인이나 집단이 기대하거나 추구하거나 목적으로 삼는 사회자본의 형성원에 해당된다.

둘째, 연결망이다. 연결망이 곧 추상적인 사회자본을 구체화 시키는 물질적 기초가 되기 때문이며, Bourdieu의 공고한 네트워크 혹은 다소 조직화된 관계망, Burt의 친구, 동료 그리고 그 이상의 일반적인 계약, Putnam이 언급한 사회조직 등은 학자에 따라 조금씩 지칭하는 대상이나 초점이 다르기는 하지만, 개인 간의 연결망을 지칭하는 것이다.

〈표 1〉 학자별 사회자본 개념의 구성요소

주요학자	신뢰	규범	네트워크	의무감	경계(폐쇄성)	호혜성	믿음	규칙	시민참여
Putnam, 1993	●	●	●						●
Fukuyama, 2001	●				●				
MSU SCIG, 1998				●		●			
World Bank, 2000		●							
Coleman, 1998	●	●	●	●	●	●			
Bourdieu, 1982			●						
Lin, 2001			●						
Burt, 2001			●						
Portes, 1998		●		●	●	●			
Adler & Kwon, 2000	●	●	●				●	●	

(출처: 배영 2007, 60)



(출처: 이준웅 외 2006, 141)

〈그림 1〉 사회자본론의 설명 구조

셋째, 효과이다. 연결망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담아내는 구조적 차원이라면, 효과는 Bourdieu가 언급한 실질적이거나 가상적인 자원, Burt가 언급한 재정적, 인적 자본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 또는 Putnam의 조정과 협조 등과 같은 결과물을 지칭한다.

사회자본의 효과는 설명적으로 연결망을 통한 사회관계가 산출하는 것으로서 사회관계의 형성의 이유, 기대, 목적 등을 지칭하는 형성원과는 구분된다. 전자가 사회관계가 결과적으로 산출하는 개인이나 집단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영향, 사회적 보장 등의 경험이라면, 후자는 그러한 경험에 대한 개인적 기대구조 또는 사회적 기능을 지칭한다.

이에 유석춘・장미혜(2002, 98-101)는 다른 형태의 자본과 구분하여 사회자본이 갖는 특성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첫째, 사회자본은 행위자들이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본이 아니라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 속에 내재하고 있는 자본이라는 사실이다. 관계라는 분석적 단위의 특성이 사회자본을 다른 형태의 자본과 구분하는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이다. 그래서 사회자본은 개인적 자원이 아니라 개인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이라고 정의된다(Lin 2001, 21).

둘째, 경제자본이나 인적자본 혹은 문화자본은 소유자에게 이익이 배타적으로 돌아가지만 사회자본은 공유되는 특성을 보인다. 이익이 공유되는 특성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미시적 차원에서 사회자본을 통해 관계를 맺고 있는 구성원 사이에서만 이익이 배타적으로 공유되는 경우로, 이익의 공유에 대한 배타성을 전제로 계급이나 집단 간의 불평등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거시적 차원에서 포함되지 않는 구성원에게까지 이익이 돌아가는 경우로, 이익의 공유는 공공재로서 사회자본의 속성을 강조한다.

셋째, 사회자본은 소유자가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그것을 지속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자본과 달리 보유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자본이다. 물리적 자본과는 달리 사회자본은 일단 획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앞으로 변함없이 그 사람에게 머물러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집단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서로의 관계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재확인함으로써 인정을 받는 일련의 지속적인 교환과정을 거쳐야만 사회자본은 유지되고 재생산될 수 있다(Bourdieu 1986).

넷째, 사회자본을 매개로 한 사회적 교환관계는 다른 경제적 거래처럼 동등한 가치를 지닌 등가물의 교환이 아니다. 사회자본은 거래 당사자인 두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신뢰가 준 것 만큼 줄어들고 받는 것만큼 늘어나는 영합(zero-sum)관계로 나타나지 않고, 거래 당사자 모두가 사용하면 할수록 더욱 축적되고 더욱 증가되는 정합(positive-sum)관계로 나타난다(Alder & Kwon 2000).

다섯째, 경제자본의 교환은 시간적으로 볼 때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에 사회자본의 교환은 이러한 동시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이는 경제자본이 교환되는 시장에서의 경제적 교환과 사회자본이 교환되는 비정부/비영리 영역에서의 사회적 교환에 적용되는 개인의 동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Lin 2001).

2.3 사회자본의 형태와 범위

사회자본이란 개념은 신고전주의 경제학에서 생산요소 혹은 마르크스주의에서 생산수단이라고 불리고 있는 전통적 의미의 자본 개념을 확대시킨 개념이다(유석춘, 장미혜 2002, 96). 물리적 자본이 도구를 만드는 재료의 변화 속에서 창조된 것처럼, 인적 자본 역시 새로운 환경속에서 활동 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이끌어내는 인간의 변화 속에서 만들어 진다. 물리적 자본은 관찰 가능한 물리적 형태로 만들어진 실체적인 존재라면, 인적 자본은 개인에 의해 습득된 기술과 지식 속에서 구현된 덜 실체적 존재이다(Coleman 1998, s100). 그러나 사회자본은 개별행위자가 아닌 사회적 관계 속에 존재하는 신뢰와 결속관계의 자본을 말하며, 물적·인적 자본과 같이 사회의 생산성을 담보하는 비실제적 존재라는 것이다.

Bourdieu와 Coleman에 의해 시작된 사회자본에 관한 연구는 결속(bonding)-교량(bridging)적 사회자본,[1] 거시적-미시적, 구조적-인지적 등 다양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거시적-중간-미시적 차원과 구조적-인지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3.1 거시적-중간-미시적 구분

Turner(2000, 95)는 사회자본의 형태를 거시적-중간-미시적 접근으로 구분한다. 거시적(macro) 수준은 집단이 생산, 재생산, 규제와 협력을 위해 기초적 또는 근본적인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조직화하는 제도적 영역으로 혈족관계, 종교, 경제, 정치, 법률, 교육 등이 해당된다. 그리고 중간적(meso) 수준은 협력단위(cooperate units)와 부류적 단위(categoric units)로서 소속집단의 속성을 토대로 구성된 단위가 여기에 해당된다. 미시적(macro) 수준은 협력단위와 부류단위내의 면대면의 상호작용을 통한 사회적으로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이다. 위와 같은 각각의 수준에 대한 분석은 사회활동의 성쇠(盛衰)를 보는 방식을 나타내는 것이며, 또한 실제 세상에서는 확연하게 구분되지는 않고 상

1) Putnam이 제시한 개념 중 사회적 자본의 형태를 '결속(bonding)'과 '교량(bridging)'으로 구분한 것이다. 결속은 동질적 집단 내의 유대감이고, 교량은 이질적 집단들 사이의 연대감이다.

호 배태(embedded)되어 있다. 이를 간략히 도식화 하면 〈그림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3.2 구조-인지적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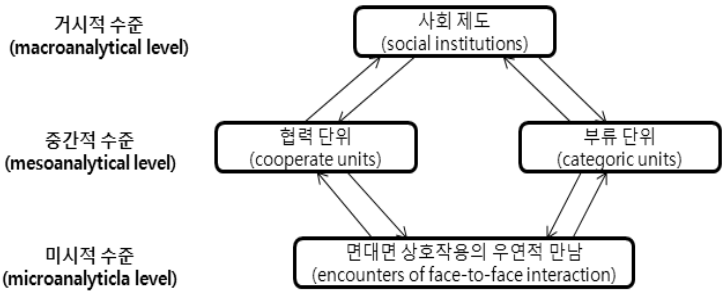
Uphoff(2000, 215)에 의한 구조적-인지적 형태의 구분이다. 구조적 차원은 역할(roles), 규칙(rules), 전례(precedents), 절차(procedure) 그리고 협력을 위한 다양한 관계망, 상호 호혜의 집합적 행동과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인지적 차원은 협력적 행동과 상호 호혜의 집합적 행동에 공헌하는 문화, 사상(ideology), 규범(norms), 가치, 태도를 강화하는 신념, 정신의 흐름(mental process)과 생각(ideas)으로부터 유래한다.

이러한 차원은 〈표 2〉와 같이 나타내어진다.

2.3.3 통합적 구분

Grootaert and Bastelaert(2001, 20)에 의해 두 가지 구분을 통합하여 정리한 결과는 〈그림 3〉과 같이 구분되어 진다.

첫째, macro, meso, micro적 구분이다. 거시적(macro) 차원은 제도적(institutional) 혹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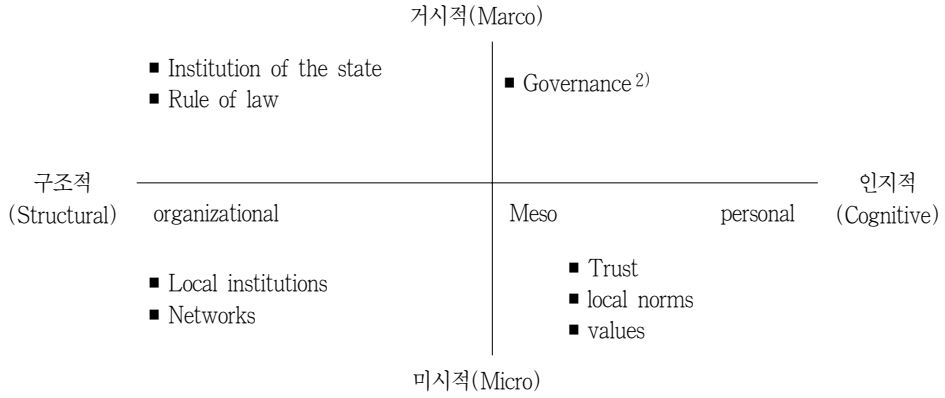
(출처: Turner 2000, 96)

〈그림 2〉 거시-중간-미시 수준의 배태성

〈표 2〉 사회자본의 상호보충적 범주

	구조적(structural) 차원	인지적(cognitive) 차원
Sources and manifestations (원천과 형태)	역할과 규칙(Roles and rules) 연결망과 개인적 관계(network and other interpersonal relationships) 관례(precedents)	규범(Norms) 가치(Values) 태도(Attitudes) 신념(Beliefs)
영역 (Domain)	사회 기관(Social organization)	시민 문화(Civic culture)
동적요인 (Dynamic factors)	수평적 연결(Horizontal linkages) 수직적 연결(Vertical linkages)	신뢰(Trust), 결속(solidarity), 협력(cooperation), 관용(generosity)
공통요소 (Common elements)	협력행동을 위한 기대이며, 이는 상호 이익을 산출한다.(Expectations that lead to cooperative behavior, which produces mutual benefits)	

(출처: Uphoff 2000, 221)



(출처: Grootaert and Bastelaert 2001, 20)

〈그림 3〉 사회자본의 형태와 범위

정치적 차원에 초점을 맞추며, 이는 법률, 규칙, 계약 등을 의미한다. 중간(meso) 차원은 지역, 공동체, 집단적 환경을 의미한다. 또한 미시적 차원은 개인 및 가정 등의 상호작용의 면식 관계를 통한 규범을 의미한다.

둘째, 구조적-인지적 형태의 구분이다. 구조적 차원은 제도와 연결망 등 사회구조적 측면에서의 연구이다. 예를 들면, 음악 클럽 혹은 운동 모임과 같은 객관적이고 외부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사회적 구조를 일컫는다. 반면에 인지적 구조에서의 사회자본은 개개인이 보유 및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인 신뢰 및 가치 등의 연구이다. 이는 주관적이고 보이지 않는(intangible) 요소로서, 태도, 행동의 규범, 공동의 가치와 상호 호혜성 및 신뢰 등을 말한다.

3.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영향과 사회자본 창출

3.1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영향

도서관의 사회적 영향은 최근에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개념화하고 묘사하는데 사용되어 지고 있다(Aabø 2005, 207). Debono(2002, 89-91)에 의하면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영향은 지역사회에 속한 개인 및 공동체들의 사회적 혜택과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며, 이러한 혜택과 가치는 도서관을 이용함으로써 얻는 경험 및 차이의 긍정적인 효과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라 하고, 기존의 문헌들을 정리하여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구 대상을 15개의 범주로 아래와 같이 구분하였다.

2) 거버넌스는 국가나 정부에만 고유한 용어가 아니고, 널리 집단활동을 조정하고 규율하며 해결하는 복합적인 의미, 즉 통치를 비롯하여 지배나 관리의 의미를 함축하는 통치 방식이다.

- Public Space: 공공의 장소
- Health & general information: 건강과 일반정보
- Education: 교육
- Decreasing social isolation(Social inclusion): 사회적 통합
- Community building: 공동체 형성
- Recreation: 여가활동
- Vocational &/or economic: 직업과 경제
- Personal development: 자기 계발
- Equity/Free access: 자유로운 접근
- Increased quality of life: 삶의 질 향상
- Culture & arts: 문화와 예술
- Support democracy: 민주주의의 지원
- Develop IT skills: 정보기술 개발
- Local history/genealogy: 지역 역사와 계보
- Information literacy: 정보 문해

또한 ALA[3]에서 좋은 공공도서관의 다양한 역할들을 12가지의 핵심적 요소(Twelve ways libraries are good for the community)로 제시하였다.

- Libraries inform citizens: 시민에게 알림 (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한 민주주의 지원)
- Libraries break down boundaries: 경계의 벽을 제거.
- Libraries level the playing field: 공평함.
- Libraries value the individual: 개인의 가치.
- Libraries nourish creativity: 창의성 증진.
- Libraries open kid's minds: 아이들의 마음을 열게 함.
- Libraries return high dividends: 사회적 이익에 대한 높은 보상.
- Libraries build communities: 공동체 형성.
- Libraries make families friendlier: 가족의 결속.
- Libraries offend everyone: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도록 독려함
- Libraries offer sanctuary: 안전한 장소 제공
- Libraries preserve the past: 과거의 보존

위와 같이 다양한 도서관의 사회적 영향은 지역공동체를 위한 다른 어떠한 사회제도적 기관보다 폭 넓은 스펙트럼을 형성하고 있다. Matarasso (1998)는 공공도서관이 추구하는 새로운 사회적 임무(mission)에 대한 발전적 역할을 주창하였다. 이의 의미는 공공도서관이 문해(literacy), 교육, 평생학습, 정보기술, 고용, 가족, 빈곤, 건강, 공동체의 발전, 민주주의, 지역문화 등의 서비스 제공을 구축해야하며, 개인 혹은 공동체의 발전과 관련된 공공정책의 개발에 핵심적 위치를 차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사회적 문제의 해결 및 지속적인 공동체 유지를 위해 공공도서관의 역할과 범위를 확장하여 도서관 서비스의 가치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자본 또한 사회 발전, 민주주의의 지원, 경제발전, 정부의 효율성, 공동체의 발전, 교육, 개인의 건강과 웰빙, 사회문제 해결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긍정적인 사회활동의 발전과 연관

3) 〈http://www.ala.org/ala/alonline/resources/selectedarticles/12wayslibraries.cfm〉. (cited in 2009/04/18/).

되어 있다(Goulding 2005, 3-4). 이처럼 사회자본 효과와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영향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고 해석되어진다.

3.2 공공도서관의 사회자본 형태와 범위

공공도서관의 목적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회적 요구와 부합해야 한다. Jesse Shera는 공공도서관의 목적은 사회자체의 목적에 직접적으로 의존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공공도서관의 목적은 사회자본을 형성하는 형성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을 공동체의 모임장소이며, 공동체의 정보 및 오락의 중심지로 묘사(Hillenbrand 2005, 47)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공고화된 연결망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형성원과 연결망을 통해 도서관은 사회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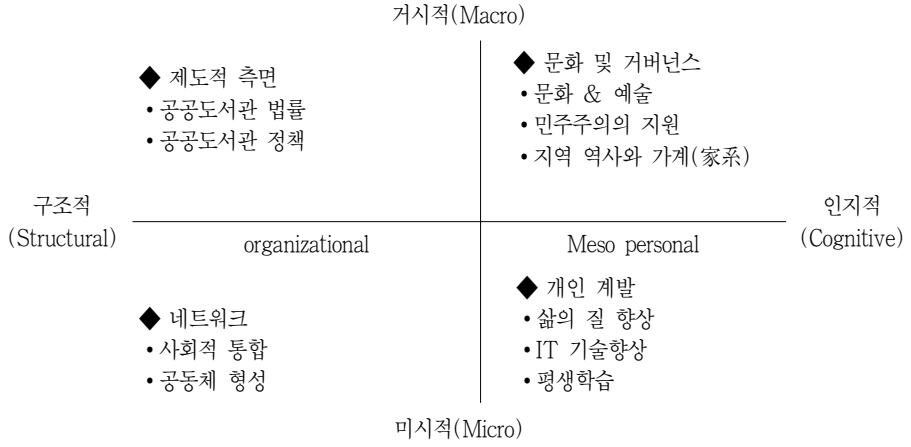
이에 Grootaert and Bastelaert가 제시한 '사회자본 형태와 범위'에 대한 구분을 응용하여 공공도서관의 사회자본의 형태와 범위를 구분하면 〈그림 4〉와 같다.

이를 4가지 차원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첫째, 거시적-구조적 측면으로 공공도서관의 법률 및 정책이다. 법률과 정책은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되어야 하며 안전한 공공의 장소로써 또는 인종, 성별,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로이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 정신을 위한 영역일 것이다.

둘째, 거시적-인지적 측면으로 문화 및 거버넌스이다. 공공도서관은 지역민의 문화적 향유와 활동을 독려하여 문화와 예술 발전의 토대를 제공하고 또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의 폭을 확장시켜 시민적 참여를 활성화하여 민주주의 기반을 형성하는 영역이다. 또한 지방 고유의 역사와 가계에 대한 자원의 수집 및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체성을 갖는 영역일 것이다.

셋째, 미시적-구조적 영역으로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와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관계망의



〈그림 4〉 공공도서관 사회자본의 형태와 범위

형성 영역이다. 독서클럽, 문화 소모임 등의 집합적 활동을 지원하고 조직화 하는 것이며, 또한 다문화 및 이주 근로자들을 위한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 신뢰와 호혜성을 바탕으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넷째, 미시적-인지적 영역으로 개인 계발 영역이다. 즉 지역 도서관의 자원에 대한 가치와 신뢰를 바탕으로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지역민이 사회의 커다란 변화에 적응하고 창의력을 개발함으로써 개인과 지역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3.3 공공도서관의 사회자본 창출

전통자본과 달리, 사회자본은 공공재라고 주장한다. 즉 개인이 사회자본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적인 재산이 아니며, 신선한 공기나 안전한 거리 등과 같은 다른 공공재와 마찬가지로 사회자본은 개인 행위자에 의해 공급되지 않는다(Putnam 1993, 38). 이러한 사실은 사회자본이 다른 사회적 활동의 부산물임을 의미한다. 사회자본은 사회적 규범을 가능하게 하고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특정 종류의 사회구조는 개인의 사취를 허용하지 않고, 사회구조를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사회구조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간다(Colemann 1988, s116).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회자본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은 아직도 매우 복잡하고 체계화되지 않았다. 더구나 공공도서관이 사회자본을 창출한다는 연구는 거의 초기적 단계라 말할 수 있다. 공공도서관과 사회자본에 대한 몇몇의 문헌에서 밝힌 공공도서관의 사회자본 창출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Hillenbrand(2005, 9)는 공공도서관의 역사적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 사회자본 창출을 위한 도서관의 사회적 영향과 잠재성을 추적하였다. 그리고 모든 문헌에서 아래의 다양한 방식들을 통해 공공도서관이 사회자본을 창출한다고 하였다.

- 장벽을 허물고 포용력(tolerance)을 강화: 나이, 성별, 인종, 경제적 지위, 문화 그리고 신념에 관계없이 시민들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민적 참여의 장려.
- 정보화 시민 양성: 시민의 자유로운 정보이용을 통한 민주주의 지탱 및 정보 문해 촉진.
- 가교 자본(bridging capital) 구축: 지역 내의 다른 기관과의 협력체계 참여.
- 공동체 형성: 가까운 이웃(neighborhood)의 제공과 모임 장소 제공에 의한 사회적 통합 및 결집을 통한 신뢰 구축.
- 결속 자본(bonding capital) 구축: 지역민의 대화와 지역정보 제공.
- 공동체 참여 독려: 개인과 공동체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공공의 공간.

또한 Karnchi(2001, 41)에 의하면 도서관은 사회자본이 풍부한 기관이며 새로운 시대의 시민의식의 자각과 공동체의 부활을 이끌고 유지하는 곳이라 하였다. 그리고 시민의 참여를 독려하여 사회자본을 창출하는 곳이라 하고, 아래와 같이 오늘날의 도서관의 역할을 서술하였다.

- 도서관은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나이, 인종, 문화, 경제적 지

위, 언어, 지역의 장벽을 허물어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함.

- 도서관은 가치와 사회 연결망을 구성하도록 도우며, 협력과 협동을 통해 시민사회를 강화함.
- 도서관은 공동체의 폭 넓은 독서의 기회 제공과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 지역의 문제에 대한 토론을 위해 지역의 집단을 소집하고 시민 자질(skills)을 가르침.
- 공동체 정보문해(information literacy)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협력적인 지역문해 훈련에 협력함.
- 디지털 근린(neighborhood) 사회를 창출하고 지역공동체의 정보서비스와 네트워크 및 포털을 개발.
- 선거의 투표자들에게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고 투표의 장소를 제공.
- 도서관은 지역 박물관, 학교, 공공방송국 등과 프로젝트에 협력함.

그리고 Vårheim(2007, 421)은 공공도서관을 사회자본을 창출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인식하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지적하였다.

- 사회 중심적(society-centered) 참여의 관점으로 자발적인 결사체(association)의 형성을 통해 도서관의 발전을 꾀하며, 이러한 조직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지역공동체 활동의 참여를 향상.
- 공공도서관은 지역민을 위한 비공식적 모임의 장소.
- 공공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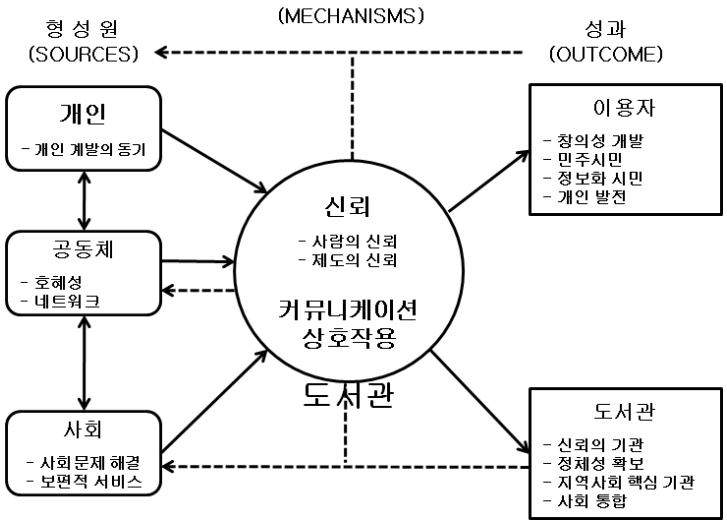
이와 같이 공공도서관의 사회자본 창출을 위한 메커니즘을 구체화하여 도식화하면 〈그림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위의 메커니즘을 사회자본의 구성요소인 신뢰,[4] 연결망,[5] 호혜성[6]을 통해 분석하면 다음

4) Giddens(1990)은 신뢰를 사람에 대한 신뢰와 제도에 대한 신뢰로 구분한다. 사람에 대한 신뢰는 신뢰의 기본적인 형태로서 사적인 형태의 신뢰를 말한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사적인 친분이나 혈연만이 신뢰를 가능하게 해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제도에 대한 신뢰가 강조되는데 이는 공적인 신뢰를 의미한다. 제도는 특정한 행위를 가능하게 하고 동시에 제약하기 때문에 제도에 대한 신뢰는 벌어지는 상황을 예측 가능케 하고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한다.

5) 최종렬(2004)에 의하면 사람들 사이의 유대에 기반한 사회적 연결망은 집단 및 개인들을 묶어주는 관계들의 집합이다. 사회자본은 개인이 소유한 자원이 아니라 개인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이기 때문이다. 이에 사회적 연결망은 강한 연대와 약한 연대로 구분되어 질 수 있다. 강한연대는 특정한 집단에 소속된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는 기본적으로 집단의 폐쇄성을 전제로 성립하며, 집단 내 다른 구성원과의 관계 맺기에 필요한 효과적인 규범이 출현하기 위해서는 닫힌 연결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를 결속적 사회자본(bonding capital)이라 불린다. 그러나 약한 연대는 폐쇄된 집단의 경계의 범위를 넘어서 다른 집단의 구성원과 느슨한 관계로 개방성을 이야기 하며, 가교자본(bridging capital)으로 불린다.

6) 최종렬(2004)에 의하면 호혜성에 대해 가장 체계적인 고찰을 한 사람은 샐린스(Salins)이며, 그 역시 도덕적 의무감을 호혜성의 원칙으로 보고 이해관계, 예상된 보답의 즉각성, 예상된 보답의 등가성이라는 세 분석적 차원을 통해 일반화된 호혜성, 균형잡힌 호혜성, 부정적 호혜성으로 더욱 정교화 시킨다. 첫째, 일반화된 호혜성은 예상된 보답의 즉각성과 등가성에 있어 그 의무가 긍정적으로 무한정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시간, 양, 질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되도록 빨리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되돌려 주려한다. 예를 들면 공유, 친절, 무료 선물, 도움, 너그러움 등을 말한다. 둘째, 균형잡힌 호혜성은 등가물의 교환이다. 예상된 보답의 즉각성과 등가성이 높고 서로를 공평하게 고려한다는 점에서 혼인거래, 친구간의 계약, 평화협약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부정적 호혜성은 일반화된 호혜성과 반대로 자기 이해관계를 최고로 고려하여 교환된 자원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하는 부등가적이며, 보상의 즉각성이 매우 짧다. 예를 들면, 값깍기, 바터, 도박, 속임수 강탈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림 5〉 도서관의 사회자본 창출 메커니즘

과 같다.

첫째, 공공도서관에 있어서 신뢰는 이용자와 사서와의 관계적 신뢰를 형성한다. 또한 도서관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출판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 인증된 자원의 서비스와 보편적 서비스를 통한 제도적 신뢰를 확보하고 있다.

둘째, 연결망에 있어 공공도서관은 가교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공공도서관은 지리적으로 지역의 중심에 위치하여 지역 공동체 연결망을 형성한다. 이는 종교, 학력, 계층, 성별, 인종, 민족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모임 및 문화적 향유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존재하며, 또한 지역사회의 다른 기관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가교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셋째, 호혜성에 있어 공공도서관은 일반화된 호혜성을 지닌 기관이다. 이해관계에 있어서 이용자의 이해관계를 먼저 고려하고, 보상에 대한 즉각성이 없으며, 보상의 등가성 또한 정해져 있지 않다. 예를 들면, 공공도서관은 정보서비스를 통해 정보화 시민의 양성, 민주주의 지원, 정보문해, 자기 계발 등의 지역민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영향을 미친다. 이에 공공도서관은 공공재로써 지역민의 정보서비스 요구에 대한 즉각성과 등가성에 있어 그 의무가 긍정적으로 무한정하며, 되도록 빨리 더 좋은 정보자원을 많이 되돌려 주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용자들에게 정보서비스에 대한 어떠한 보상의 즉각성이나 등가성을 바라지 않고, 향후 도서관의 발전을 위한 기부 및 자원봉사 활동의 참여 등의 장기적 관점에서의 도서관에 대한 긍정적 마인드를 발생시킨다. 즉 이러한 일반화된 호혜성은 장기적으로 지속되면서 두터운 상호 신뢰가 공유된 공동체적 집단에서 나타나는 규범으로 집합적 자산으로서의 사회자본을 형성하는 핵심이 된다(정재영, 장정호 2007, 60).

따라서 공공도서관이 사회자본 창출을 위한

역할 및 활동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중심체로서 지역 내의 다른 집단 및 기관과 서로 협력해야한다. 또한 협력체를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공동체 연결망 혹은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및 문화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개인 및 집단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시켜 신뢰, 상호 호혜성을 형성하는 근간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인 및 집단의 상호작용을 통한 행동은 사회적 맥락속에서 형성되고 또한 변화와 제약을 받으며, 사회적 연결망, 호혜성, 사람들 간의 신뢰 등은 사회적 기능뿐만 아니라 경제적 기능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4. 결 론

지역 공동체의 신뢰 및 호혜성 또는 지역문제의 현안의 해결을 위한 자발적 네트워크를 통한 참여의식 등이 사회자본이라면 사회자본은 지역공동체의 주민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도서관의 핵심적인 목표는 지역공동체를 결성하고 사회자본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역할은 지역사회에서 공공도서관이 단독으로 수행하기는 힘들다. 이에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정책입안 관련자들에게 공공도서관이 사회자본을 창출한다는 인식의 폭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은 공공도서관의 투자에 대한 정당성과 도서관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커다란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 기대된다.

아울러 공동체를 경제적 논리로 재편할 때, 공동체에 미치는 효과 즉 사회자본을 파괴할 위험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Putnam 1993, 40). 왜냐하면 사회자본은 공공재이므로 도서관을 축소하고 공동체를 파괴함으로써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개인적으로 손해를 감당해야 할 수준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좋은 공공도서관은 더 이상의 특권이 아니며, 시민사회에서의 필수적인 요구이다. 공공도서관은 '요람에서 무덤까지'처럼 다양한 이용자 계층, 다양한 요구, 잠재적 교육, 정보・문화적 영향력 등 다른 어떠한 기관보다 다양한 역할을 하는 곳이다(Bundy 2003, 5).

급속한 사회의 변화에 따른 개인주의의 팽배와 다문화에 의한 문화적 차이에 직면하여 공공도서관은 사회자본을 창출할 수 있는 더욱더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정부는 정보서비스로부터 공동체 형성 및 지역문화 발전에 이르기까지 다른 어떤 기관보다 다양한 사회적 영향을 수행하는 공공도서관에 투자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또한 공적인 목적을 위해 공공예산과 공적 역량을 보다 기꺼이 사용하여야 하며, 사회자본 창출의 핵심기관인 공공도서관을 간과해서는 곤란하다.

사회자본 접근법은 사적인 사회 하부조직을 공공정책과 결합시키는 새로운 방식을 발견할 것을 약속하며, 현명한 공공정책은 지역 및 국가의 사회자본의 축적을 재활성화 시킬 것이다. 사회자본은 효과적인 공공정책에 대한 대안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 대한 전제조건이며 또한 부분적으로는 그에 따른 결과이다(Putnam 1993, 42). 현대의 공공도서관은 사회자본의 창출자로써 최상의 투자 가치를 지니고 있는 공공재이므로 사회의 정책에 우선순위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공유식, 박길성, 유홍준. 1994.『신경제사회학의 이해』. 서울: 역사비평사.

[2] 배영. 2007.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과 사회자본: 사회자본 논의의 이론적 쟁점과 실천적 과제를 중심으로.『커뮤니케이션 이론』, 3(2): 54-81.

[3] 유석춘, 장미혜. 2002. 사회자본과 한국사회.『사회발전연구』, 8: 87-125.

[4] 이준웅, 문태준, 김은미. 2006. 사회자본과 커뮤니케이션의 품질.『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19(3): 135-173.

[5] 정병은, 배영. 2006. 노가다의 사회자본 형성과 한계: 건설일용자의 연결망, 신뢰, 호혜성.『사회연구』, 2: 9-37.

[6] 정재영, 장정호. 2007. 교회내 사회자본의 형성과 축적: S교회를 중심으로.『현대사회와 문화』, 26: 49-79.

[7] 최종렬. 2004. 신뢰와 호혜성의 통합의 관점에서 바라본 사회자본: 사회자본 개념의 이념형적 구성.『한국사회학』, 38(6): 97-132.

[8] Aabø, Svanhild. 2005. "The role and value of public libraries in the age of digital technologies." *Journa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7(4): 205-211.

[9] Adler, Paul S., & seokwoo, Kwon. 2000. "Social capital: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 In Erick L. Lesser. ed., *Knowledge and Social Capital: Foundation and Application*, 89-115. Boston: Butterworth Heinemann.

[10] Bourdieu, Pierre. 1986. "The forms of Capital." John. G. Richardson. 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Sociology of Education*, 241-258. New York: Greenwood.

[11] Coleman, James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S95-S120.

[12] Bundy, Alan. 2003. "Best investment: the modern public library as social capital." 27 August 2003. [online]. [cited 2009.03.15]. 〈http://www.library.unisa.edu.au/about/papers/best-investment.pdf〉.

[13] Debono, Barbara. 2002. "Assessing the social impact of public libraries: What the literature is saying." *Aplis*, 15(2): 80-95.

[14] Farr, James. 2004. "Social capital: A conceptual history." *Political Theory*, 32(1): 6-33.

[15] Goulding, Anne. 2004. "Libraries and social capital." *Journal of Librarianship and Information Science*, 36(1): 3-6.

[16] Grootaert, Chirstiaan, & Bastelaert, Thierry V. 2001. "Understanding and Measuring Social

Capital: A Synthesis of Finding and Recommendations from the Social Capital Initiative." *Social Capital Initiative Working Paper*, 24: 1-31.

[17] Hillenbrand, Candy. 2005. "A place for all: social capital at the Mount Baker community library, South Australia." *Aplis*, 18(2): 41-58.

[18] Kranich, Nancy. 2001. "Libraries Create Social Capital." *Library Journal*, 15 November: 40-41.

[19] Lin, Nan. 2001. *Social Capital: A Theory of Social Structure and Action*. Cambridge(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 Matarasso, Francois. 1998. "Learning Development: An Introduction to the Social Impact of Public Libraries." London: British Library Research & Innovation Centre. Quoted in Candy Hillenbrand. Public Libraries as Developers of Social Capital. *Aplis*, 18(1): 4-12. 2005.

[21] Michael, Woolcook. 1998. "Social capital and economic development: toward a theoretical synthesis and policy framework." *Theory and Society*, 27: 151-208.

[22] Portes, Alejandro. 1998. "Social capital: Its origins and application in modern society." *Annual Review of Sociology*, 22: 1-24.

[23] Putnam, Robert. 1993. "The prosperous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The American Prospect*, 13: 35-42.

[24] Putnam, Robert. 1995. "Bowling Alone: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Journal of Democracy*, 6(1): 65-78.

[25] Segageldin, Ismail, & Goortaert, Chirstiann. 2000. "Defining Social Capital: An Integrating view." *Social Capital: a Multifaceted Perspective*. Partha Dasgupta, & Ismail Serageldin. ed., Washington, D.C.: World Bank. 40-58.

[26] Turner, Jonathan H. 2000. "The formation of social capital." *Social Capital: a Multifaceted Perspective*. Partha Dasgupta, & Ismail Serageldin. ed., Washington, D.C.: World Bank. 94-146.

[27] Uphoff, Norman. 2000. "Understanding social capital: Learning the analysis and experience of participation." *Social Capital: a Multifaceted Perspective*. Partha Dasgupta, & Ismail Serageldin. ed., Washington, D.C. : World Bank. 215-247.

[28] Vårheim, Andreas. 2007. "Social capital and public libraries: The need for research."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29: 416-428.

[29] White, Larry N. 2007. "Unseen measures: the need to account for intangible." *The Bottom Line: Managing Library Finances*, 20(2): 77-84.

[30] World Bank. 2006. *Where is the Wealth of Nations?:Measuring Capital for the 21st Century*. Washington D.C.: World Bank.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1] Yu-Sik Kong, Gil-Seong Park, and Hong-Jun Yoo. 1994. *Singyeongjesahoehakui Ihae*. Seoul: Yeoksabipyeongsa.

[2] Young Bae. 2007. "The New Communication Media and Social Capital: Focused on Theoretical Debates and Practical Issues in Social Capital." *Communication Theories*, 3(2): 54-81.

[3] Seok-Choon Lew, & Mi-Hye Chang. 2002. "Sahoejabongwa Hanguksahoe." *Sahoebaljeonyeongu*, 8: 87-125.

[4] Jun Woong Rhee, Tae Joon Moon, and Eun Mee Kim. 2006. "Social Capital and Qualities of Communication." *Journal of Cybercommunication Academic Society*, 19(3): 135-173.

[5] Byeong-Eun Cheong, & Young Bae. 2006. "The Formation and Limit of "Nogada"(Daily Employed Worker)"s Social Capital: Networks, Trust and Reciprocity of Daily Employed Workers in Korean Construction Industry." *Social Research*, 2: 9-37.

[6] Jae-Young Jung, & Jung-Ho Jang. 2007. "The Formation and Accumulation of Social Capital within Churches: Case Study at S Church." *Journal of Contemporary Society and Culture*, 26: 49-79.

[7] Jongryul Choi. 2004. "Social Capital from the Integrative Perspective of Trust and Reciprocity: Construction of Ideal Types of Social Capital." *Korean journal of sociology*, 38(6): 97-132.